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박차

정읍시가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가족 단위의 정주 여건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촌유학 거주시설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칠보면 일원에 새로운 주거 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편의시설을 갖춘 1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기획 심의를 마친 상태로 건축 설계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 설계 완료 후 내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 유학을 위한 인프라가 차츰 구축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정읍시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으로 비료가 공급되는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가능. 여러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유기질비료와 부속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을 지원하고 부속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1600원을 지원한다. 정읍에서 생산된 비료를 신청할 경우 추가로 포대당 300원을 지원해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수출 시장개척

라오스 바이어 초청 현지 수출상담회 · 베트남 수출 업무협약 관측행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해 라오스·베트남 시장개척에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은 지난 4일 라오스 비엔티엔시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농식품 유통바이어를 초청하여 농특산물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Big C, Jiffy, K&K 마트 등 현지 유명 유통업체 7개사 바이어가 참석하며 북분자주, 풍천장어 등 25종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시에 54개의 슈퍼마켓 매장을 가지고 있는 태국계 유통업체 Big C는 북분자주, 켈리, 유아용 파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계



유통업체인 K&K 마트는 북분자주 음료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수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고창군 방문단은 베트남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K&K Global trading(회장 고상구)과 7일 하노이 본사에서 고창 농특산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사 유통매장인 K마켓 골든 플레이스점에서 AT 하노이 지사와 함께 5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북분자주, 켈리, 장어 가공제품 등이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았으며 연간 5만불 정도의 수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10월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된 라오스에서 고창 농특산물을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또한 베트남 내 한국 농식품 유통을 선도하는 K마켓과 금번 업무협약 및 관측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고창 농특산물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당·지역연고 탈피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허영·엄태영 의원 및 김윤덕(문체위), 임오경(문체위), 박성민(산자위) 의원과 만나 시의 주요 현



올 고창지역 임산부 · 출생아 증가세 뚜렷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희망찬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민선8기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현재(10월말 기준) 153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임산부 122명에서 25% 증가했다. 출생아 역시 지난해 전체 137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140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160명 이상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화의 배경에는 고창군의 다각적인 지원이 한몫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3년 출생아부터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전폭 최대 규모로 상향하면서 출산가정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안사업과 2025년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지역연고에 편중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소속 위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썼다. 그는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80억), 정읍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15억), 고사부리성 복원사업(258억) 등 8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 기술 개발, 기초 인프라 구축, 주민 숙원사업, 문화관광 개발, 농생명 활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확대 지원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밖에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산후건강관리 지원(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및 분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보충식품)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에서는 지난 3일 농협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80여명과 농가주부모임 · 고창주부모임 50여명 등 130여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휴일 반납하고 구슬땀 흘려'

부안농협, 부안 관내 배추수확 농촌 일손돕기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에서는 지난 3일 농협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80여명과 농가주부모임 · 고창주부모임 50여명 등 130여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선운리 유모씨 소유 2.620㎡, 봉덕리 황모씨 3,900㎡ 밭에서 배추 12,000포기 수확작업 및 운반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부안농협의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확한 배추는 부안농협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된다.

김원철 조합장은 "올해에는 고온과 이상기온과 병해충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되고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적기에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 고령농가, 부녀자 농가를 위주로 지속적인 일손돕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2024년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 개최

인재양성 위해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인구유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해 지난 7일 K건벤치대당홀에서 2024년 부안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사)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주요 내·외빈들과 귀농귀촌인 200여명이 참석해 2024년 귀농귀촌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2024년 귀농귀촌지원사업 활동 동영상 시청과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쓰 귀농귀촌인 9명을 표창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귀농귀촌사업 활동사진 전시, 귀농귀촌인들의 비올라와 색소폰 공연 등이 더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는 부안군 홍보 및 박람회 참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귀농인의 집 운영등을 수행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영두 부군수는 "부안군은 도시민 유지와 전입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을 듣고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